

고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 연구

정막래* · 박선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그 속에 나타난 여주인공들의 형상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해보았다. 이분법적으로만 분리시켜왔던 우리 인간의 성은 고대 러시아 문학 속에서 이미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이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등장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그 사회가 기득권이 아닌 층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야말로 열린사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1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위경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에서 성모마리아는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신앙심 깊은 성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하게 되는 율리아니아의 경우, 비록 죽을 때는 성녀의 모습으로 죽게 되지만 생전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성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여성 형상이 등장 초기에 가졌었던 성스러운 이미지를 벗어나 속세와 어울려 살아가는 보다 세속적인 성녀의 형상으로 진화해 간 것이다. 그러다가 1661년에 만들어진 전개되는 미친 아내 솔로모니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전통적 성녀의 모습과 세속적 성녀의 모습을 넘어서는 악마적 형상의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마법에 걸려 토요일마다 반인반사(半人半蛇)로 변하게 되는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대 문학 속의 여성 형상이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해 갔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애국자적인 형상으로 등장한 『유지프』를 들 수 있다.

*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jml764@daum.net)

**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초빙조교수 (aidapark@daum.net)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조국을 살리는 데에만 이용하는 등 전통적인 개념의 남자 주인공 못지않은 애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여성들 중 가장 강인하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 형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에게 의존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졌던 고대 러시아 문학 속 여성들의 모습은 이러한 작품들을 기점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여성 형상으로 진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인데, 여성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문학, 고대문학, 러시아문학, 형상, 여성, 종교, 기독교, 구드지

I. 들어가는 말

아득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천 년 이상 떨어진 먼 시절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대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제에서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인간의 심성을 담고 있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만들기도 한다.

문학에 대한 이해는 그 문학을 소유한 민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한 나라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민족의 언어와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연구과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정 국가에 대한 보다 심오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범국가적인, 보다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의 문제로, 고대라는 시대적 특성상 순종적이고 소극적일 것만 같은 여성의 모습이 실제로 당시의 문학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고대 러시아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11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편의 작품들을 선택하여 분석해 나갈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작품들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주인공들의 형상을 특성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작품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고대 러시아의 여성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그들의 언행이 어떤 특성과 진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 이전에도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다. 그 가운데 주요한 몇 편을 간추려 보자면 러시아 고대문학의 문체에 대한 문석우(1996)의 연구, 보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연작에 나타난 ‘수난자 공후’의 형상을 중심으로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과 반성과 지향을 연구하는 변현태(2003)의 논문, 초기 고대 러시아 문학의 작동 메카니즘으로서의 정치와 종교 연구를 키예프 루시 시대의 공후 성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서선정(2005)의 논문, 대화적 채널과 소통의 다차원성을 연구하는 고대 러시아 설교문학에 대한 서선정(2007)의 논문, 고대러시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악의 제문제를 고찰하는 조주관(2007)의 논문,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동양에 대한 오원교(2007)의 논문, 17세기 고대 루시 문학 속의 파우스트 테마를 『사바 그루드츠인에 대한 이야기』와 독일 슈피스의 『민중본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적인 이야기』 간의 비교로 찾아보는 홍대화(2010)의 논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고대 러시아 문학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시간과 공간에 관한 조주관(1997)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조주관의 논문 역시 고대 러시아 문학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형상 연구에 중점을 둔 작업은 아니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작품들이 고대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소재가 되는 5편의 원천은 책으로 발행된 적이 없이 고대로부

터 갖가지 방법으로 전해 내려오던 자료들을 현대 러시아어로 옮겨 정리해 놓은 구드지(1956)의 『고대 러시아 문학사』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사』는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고대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만을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 그 주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종교적 색채 덕분인지는 몰라도 소비에트 시대에 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지향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실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책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러시아 문학사』는 그 학술적 가치와 연구의 깊이로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고대 러시아 문학 연구서 중 가장 권위 있는 저서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분석될 5편의 작품은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 (Хождение богородицы по мукам)』, 『율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 (житие Юлиании Лазаревской)』, 『미친 솔로모니아에 대한 이야기 (Повесть о бесноватой Соломонии)』,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 (Повесть о Мелюзине)』, 『유지프 (Юдифь)』¹⁾로, 이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른 고대 러시아 문학작품들과는 달리 여성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간다는 것이다.

II. 고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종교적이며 여성스러운 모습이었다. 천상의 마리아가 성녀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직접 등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의 여성 형상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지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속세의 성녀로 변화하게 된다. 이후 고대 문학의 여주인공들은 때로는 악마적 형상으로, 때로는 마법에 걸린 설화 인물과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남자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진취적인 애국자로서의 형상을 보여주기에 이른다.

1) 성경식 표기는 ‘유딕’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 작품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여성은 바로 12세기에 만들어진 위경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의 주인공인 성모마리아로, 그녀는 전통적인 성자의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대 러시아에서 수 세기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작품 속에서 성모마리아는 천사장 미하일과 함께 지옥에 방문하게 된다. 갖은 고난 끝에 지옥에 도착한 성모 마리아는 이곳에서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목격하게 된다. 활활 타오르는 불의 강 속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만큼 몸이 잠긴 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뱀이나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Они погружены в огненную реку - кто до пояса, кто по пазуху или до шеи, а кто и доверху, другие лежат на постелях, объятых пламенем, третьи подвешены на железных деревьях за зуб, за язык или за ноги, четвёртых поедает змея, грызёт червь и т. д.

그들은 불타는 강 속에 빠져 있었는데, 허리까지 잠겨있는 이들, 가슴이나 목까지 잠겨있는 이들, 그리고 머리끝까지가 다 잠겨있는 이들도 있었다. 불에 휩싸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었으며, 쇠로 된 기둥에 치어나 혀, 혹은 다리가 고정된 채로 매달려 있는 이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뱀에게 잡아먹히거나 벌레에게 갉아 먹고 있었다.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 1권 68쪽)²⁾

이 같이 상세한 지옥에 대한 묘사는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종교적으로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렇듯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작품에 교회에서 금지시킨 거짓된 책이라는 뜻의 위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죄인들을 대하는 성모마리아의 ‘전통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구드지의 책(Гудзий НК История древне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1956)에서 인용된 본문에 대해서는 본문의 괄호 속에 인용문의 제목, 번역본과 쪽수만을 표기할 것임. 번역은 구드지 N.K., 『고대 러시아 문학사 1, 2』, 정막래 번역 (서울: 한길사, 2008)에서 인용함.

Богородица с состраданием относится к мучениям грешников, вызывающим у неё слёзы, сама хочет мучиться с ними в аду...

성모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동정어린 마음으로 죄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녀 스스로도 이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 받기를 원할 정도였다.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 1권 68쪽)

성모마리아는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지옥에서 가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동정심은 차라리 그들과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편이 더 마음 편하리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진실한 것이었다. 이렇듯 성모마리아가 죄인들의 고통에 생생하게 참여하는 것은 준엄하고 냉담한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되는 행동이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달리 인간적인 동정심에 치우쳐 있는 성모마리아의 모습으로 인해 위경의 범주에 속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여주인공의 형상은 17세기에 집필된 생애전 중의 하나인 『율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에 이르러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종에 이르러서는 성녀의 모습으로 죽어간 율리아니야였지만, 생전의 그녀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고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성녀적이지 않은’ 성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리하초프(1987:104)는 이를 두고 ‘생애전에서의 인간 이상화의 위기’라고 정의했다. 율리아니야를 시작으로 문학 작품속의 성녀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녀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속세의 성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던 전통적인 성녀의 모습을 율리아니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직접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녀였으나, 아내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속세에서 삶을 영위해 갔다. 이러한 새로운 형상의 성녀 출현은 우연한 일이 아닌데, 속세에 속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가면서도 성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성모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아니야의 생애전을 집필한 것은 그녀의 아들로, 이 시기는 틀에 박힌 양식을 벗어나 현실적인 성자들의 전기를 집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때였다. 올리아니야의 아들은 비록 속세의 삶을 살아가긴 하였으나 금욕주의 적인 면이 두드러졌던 자신의 어머니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 она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физ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с мужем постепенно усиливает пост, увеличивает пребывание в молитве и труде, спит на острых поленьях, кладёт в сапоги ореховую скорлупу и острые черепки, наконец после смерти мужа перестаёт ходить в баню

그녀는 남편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점점 더 금식을 강화하였으며,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또한 날카로운 장작들 위에서 잠을 잤고, 장화 속에 호두 껍데기와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을 넣고 다니기도 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목욕탕에 다니는 것조차도 그만두었다. (『올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 2권 303-304쪽)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교회에 속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올리아니야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노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들 또한 성심껏 돌보아주며 항상 큰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남편과 친척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녀는 여주인으로서 하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우도 거절하였다. 예를 들어 올리아니야는 하인이 자신의 신발을 벗겨주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았다. 또한 올리아니야는 상냥함과 섬세함을 지닌 여인으로, 이러한 그녀의 성품은 사람들의 칭송과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 устраивая по субботам и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в своём доме трапезу для духовенства, вдов, сирот и своих домашних, она выпивает одну чарку вина н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преданная аскетической жизни, любила вино,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воим ригоризмом не обидеть гостей

그녀는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에서 수도사들, 미망인들, 고아들과 자신의 가솔들을 위해서 공동 식탁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곤 했는데,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에 전념하고 있던 그녀가 포도주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금욕주의로 인해 손님들을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올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 2권 304쪽)

이렇듯 사회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원활한 삶을 살았던 올리아니야는 가정의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한 여성이었다. 아내로서의, 또한 13명의 아이들을 낳고 기른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성녀의 형상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속세의 일상 속에서도 경건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교회가 너무 멀리 있었고 지병이 있는 관계로 교회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집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모범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올리아니야의 행동은 그녀의 깊은 신앙심을 증명하고 있다.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슬픔을 겪게 된 올리아니야는 사실 속세의 삶을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설득당하게 된다.

"не спасут нас ризы чёрные, если не по-монашески живём и не погубят ризы белые, если богоугодное творим"

“만약에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지 않는다면 검은 수도복도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자비를 행한다면 흰 수도복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이요.”
(『올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 2권 304쪽)

올리아니야는 남편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속세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죽었다. 이는 고대 러시아의 생애전들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성자들이 수도사가 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녀는 속세에서 살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며 경건하게 산다면 끝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념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Скрипиль, 1948 ; Буслаев, 1990)에 따르면 『율리아니야 라자레프스카야 생애전』의 저자가 형식적인 하나님 숭배와 수도사의 생활을 부정했던 돈강 너머의 수도사들이 속해있던 사회 계층 출신일 거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성녀의 모습과는 다른, 더 현실적인 성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는 다양한 성녀의 모습을 한 여성들 외에 악마적 형상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 또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친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 이야기는 우스추크의 프로코피와 이오안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 악마들이 솔로모니야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

Они похищают её, уводят в воду, в лес, поднимают на высокие горы, на крыши домов, забивают руки и ноги в колодки, колют, режут и измучив её и надругавшись над ней, бросают её растерзанной, нагой, в полном беспомоществе. Не оставляют они её в покое и дома..

악마들은 솔로모니야를 유괴하여 물속이나 숲 속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높은 산이나 지붕 위로 그녀를 끌어올려서는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운 후 때리고 찢어댔다. 그렇게 몹시도 괴롭게 기진맥진하게 만들고서는 그녀를 모욕하고 난 후 엉망진창이 되어 실신한 그녀의 알몸뚱이를 내던져버렸다. 악마들은 집에서도 그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미친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 2권 361쪽)

솔로모니야는 이처럼 모진 고초를 겪으며 집 안팎 할 것 없이 악마들에게 끌려 다니다가 결국 그들과 관계를 하게 되기에 이른다.

От связи с демонами она рождает "тёмнозрачных", синих бесов

악마들과의 관계로 인해 솔로모니야는 검은 눈을 가진 푸른 악마들을 낳았다. (『미친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 2권 361쪽)

악마의 자식을 낳게 된 솔로모니야 역시 악마화되었다. 이런 그녀를 구해 낼 수 있는 것은 성자들뿐이었다. 그러나 술 취한 사제가 그녀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의 반밖에 행하지 못한 이유로 솔로모니야는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결국 성모와 우스추크의 성자들인 프로코피와 이오안의 도움으로 그녀는 악마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신의 배 안에 들어있던 악마를 보게 된다.

Аз же зря его - видением черн и хвост быше у него, уста же дебела и страшна; и положи его, окаянного, на помосты, закла его кочергами. Святый же Иоанн паки нача изимати из утробы моея по единому и давати святому Проконию он же закалалаша их по единому.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악마는 검은 눈에 꼬리가 달렸고 입은 괴상하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죄 많은 악마를 마루판 위에 놓고 부젓가락들로 찢러 죽였다. 성자 이오안은 내 배에서 악마들을 하나씩 꺼내어 성자 프로코피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성자 프로코피는 악마들을 하나씩 찢러 죽였다. (『미친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 2권 362쪽)

이처럼 성자들의 도움으로 솔로모니야는 악마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자들의 이론 기적이며, 여기에서 여성은 악마가 머무르는 거처인 동시에 기적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이나 선명한 악마에 대한 묘사는 러시아적이라기보다는 서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적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에 들어온 서구의 악마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솔로모니야의 이야기가 악마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뮐류지나에 대한 이야기는 마법에 걸렸다가 풀려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뮐류지나 역시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처럼 서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이 이야기는 14세기에 만들어진 프랑스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읽히던 것이었다. 프랑스어에서 독일

어로 번역된 이야기가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로부터 러시아어 번역이 이루어져 러시아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멜류지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토요일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인 괴물로 변하게 된다. 멜류지나와 결혼한 라이문트는 토요일에는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게 된다.

Но, по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у брата, нарушив обещание и подсмотрев за Мелюзиной в субботу, когда она делала тайные омовения, Раймунд лишился её навсегда.

그러나 동생의 선동에 못이긴 라이문트는 약속을 어기고서 멜류지나가 비밀스럽게 씻고 있던 토요일 그녀를 훑쳐보고 말았다. 그리하여 라이문트는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 2권 431쪽)

약속을 어긴 라이문트는 결국 멜류지나를 영원히 잃게 되었고, 자신에게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준 멜류지나가 사라지자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약속을 어기게 된 순간 모든 행복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Она с печальным возгласом покинула дом мужа и с того времени прекратилось благополучие Раймунда.

그녀는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남편의 집을 떠났고, 그 후로 라이문트 유복함은 사라지고 말았다.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 2권 431쪽)

이 이야기의 기반에는 러시아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인간인 남자와 비인간적 존재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민간 시가적인 모티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모티브는 우리나라의 옛날이야기인 『구렁덩덩 신선비』³⁾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구렁덩덩 신선비』에서는 남자주인공이 신선으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온다.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와의 차이점은 남자주인공이 아니라 여자주인공이 보통 인간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남편의 말을 어기고 그 모습을 몰래 숨어서 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남편을 잃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편은 구렁이 허물만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버린다.

고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 일반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형상은 애국자로서의 여성으로, 이러한 여성들 중 가장 애국자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인물은 『유지프』이다. 7막 29장에 달하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63명에 이르며, 이 희곡은 이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삽입과 보충들로 성경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유지프 또한 천주교 구약 성경의 유딧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려움에 처한 조국을 살리기로 결심한 미인 유지프는 자신의 미모에 사로잡힌 올로페른⁴⁾이 외치는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된다.

"Садис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е храбростимоея, обладательнице сердца моего! Садися возле мене, да яси и пиеши со мною веселящеся, ибо яко ты едина мое непободимое великодушие обладала еси, тако имаши милость мою сам а ни чрез кого же иного совершенно употребляти."

"오! 앉으시오, 내 용맹함을 이겨버린 승리자여, 내 마음의 소유자여! 내 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시다. 당신은 내 억누를 수 없는 너그러움을 가져간 유일한 사람시오. 다른 누구에게서도 나와 같은 친절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오." (『유지프』, 2권 528쪽)

올로페른의 감탄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유지프의 매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고대 문학에서 그녀는 남성적이라 할 수 있는 강인하고 단호한 애국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유지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타고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멋진 이성과의 사랑을 꿈꾸는 전통적인 여성의 형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형상이다.

4) 성경식 표기는 '홀로페르네스'이다.

Оставшись наедине с Олоферном Юдифь отсекает ему голову его же собственным мечом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Вефулию и отдаёт голову начальникам города.

올로페른과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유지프는 올로페른의 검으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베풀리아⁵⁾로 돌아온 후 도시의 수장에게 그 머리를 넘겨주었다. (『유지프』, 2권 527쪽)

이렇듯 유지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통적 관념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남성적인 모습으로, 용맹한 애국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새로운 형상을 고대 문학사에 던져 주었다. 물론 유지프는 성모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성서 속 인물이지만,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유지프라는 특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등장시키게 된 데에 의미가 있다. 유지프의 용맹함과 단호함은 하녀 아브라와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Иудифь. А хотя бы были что тельцы, что тебе в том?
Абра. Тельцов аз не боюсь, ниже людей; но что ассирия не за скоты того ведати не могу.

Иудифь. Но когда аз не боюсь, что же тебе боятнся?

유지프: 설사 그들이 황소 같다 해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 저는 황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보다도 덜 무섭죠. 하지만 짐승 같은 앓시리아인들은 눈뜨고 보기조차 두려운걸요.

유지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가 두려워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유지프』, 2권 529쪽)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유지프에게서 전통적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두려움에 떠는 하녀를 진정시키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부드러움과 유약함이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타인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카리

5) 성경식 표기는 '베틀리아'이다.

스마와 권위이다. 이러한 유지프의 모습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상으로, 이는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종교적이거나 설화적인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보다 강인하고 당당한 새로운 여성의 형상을 이루어 놓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분법적으로만 구분되었던 인간의 성과 그에 따른 역할은 이미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이거나 전형적이라고는 부르기 힘든 모습의 여성들이 문학작품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 형상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독자들까지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을 발산하였기에 고대로부터의 기나긴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작품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성은 성모마리아였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위경 『성모마리아의 지옥 방문기』에서 성모마리아는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신앙심 깊은 성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하는 율리아니야의 경우, 비록 죽을 때는 성녀의 모습으로 죽게 되지만 생전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성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여성 형상이 등장 초기에 가졌던 성스러운 이미지를 벗어나 속세와 어울려 살아가는 보다 세속적인 성녀의 형상으로 진화해 간 것이다. 그러다가 1661년에 만들어진 미친 아내 솔로모니야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전통적 성녀의 모습과 세속적 성녀의 모습을 넘어서는 악마적 형상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마법에 걸려 토요일마다 반인반사(半人半蛇)로 변하게 되는 멜류지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대 문학 속의 여성 형상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갔음을 증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애국자적인 형상으로 등장한 『유지프』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조국을 살리는 데에만 이용하는 등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남자 주인공 못지않은 애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여성들 중 가장 강인하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적인 형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게 의존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졌던 고대 러시아 문학 속 여성들의 모습은 이러한 작품들을 기점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여성 형상으로 진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괄목할 만

한 것인데, 여성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성모마리아와 죽기 전까지는 범인(凡人)으로서의 삶을 영위해갔던 울리아니야, 그리고 악마적 형상의 솔로모니야와 마법에 걸린 멜류지나를 거쳐 전통적 여성성을 버리고 조국을 살리는 데에만 몰두했던 애국자 유지프에 이르기까지, 고대 러시아 문학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형상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여성들이 시대적, 사회적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주관과 가치관을 가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발전해 갔다는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여성 형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형상이 매우 다양하며,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연구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는 문학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 외에도, 현실에서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문학에 반영되고 또 어떤 형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이해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나가는 말

현대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긴 했지만, 고대 문학 속의 여성들 역시 중요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위주였던 문학세계에서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양한 형상으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가 기득권이 아닌 층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던 성숙한 사회의 단면을 가진 사회였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학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날로 절실해져 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미래로 향하는 배의 노를 저어감에 있어 과거의 경험이라는 나침반을 무시할 수 없듯이,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고대 러시아 문학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대 러시아 문학의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시대적인 거리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고대 러시아 문학에 대한 논저나 번역본이 다른 시대의 러시아 문학 연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이 있었기에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찬란한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현실에서, 그리고 현실의 반영인 문학 속에서 늘 주변인으로만 대접받던 여성들이 능동적인 주인공으로서의 활약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싹을 틔우고 있었던 주도적 여성들의 출현이었다. 그렇기에 문학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연구해 보는 작업은 러시아 문학 전체의 흐름을 바르게 읽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연구해보는 작업은 단순히 한 민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뛰어넘어 범인류적인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의 반열에 오른 여성들의 모습은 각각의 작품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종종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다양한 여성 형상이 등장하고, 이들이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날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드지(2008). 고대 러시아 문학사 1. 정막래(역). 서울: 한길사 (Гудзий НК История древне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 1956).
- 구드지(2008). 고대 러시아 문학사 2. 정막래(역). 서울: 한길사.
- 문석우(1996). “러시아 고대문학의 문체 연구”, 노어노문학. 제8권. 291-314.
- 변현태(2003).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규범성과 반성과 지향(1): 보리스와 글렙의 생애전 연작에 나타난 ‘수난자 공후’의 형상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13권 1호. 41-70.
- 서선정(2005). “초기 고대 러시아 문학의 작동 메카니즘으로서의 정치와 종교 : 키예프 루시 시대의 공후 성화 문제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0권 2호. 149-171.
- 서선정(2007). “대화적 채널과 소통의 다차원성: 고대 러시아의 설교문학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권. 59-85.
- 오원교(2007). “고대 러시아 문학 속의 동양”. 노어노문학. 제19권 2호. 239-282.
- 조주관(2007). “고대러시아 문학작품에 나타난 악의 제문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26권. 257-298.
- 조주관(1997). “여성의 시간과 공간: 고대 러시아 문학을 중심으로”. 러시아 소비에트문학. 제8권. 88-112.
- 홍대화(2010). “17세기 고대 루시 문학 속의 파우스트 테마: 『사바 그루드 츠인에 대한 이야기』와 독일 슈피스의 『민중본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적인 이야기』 간의 비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권. 81-109.
- Буслаев Ф И(1990). “Идеальные женские характеры Древней Руси” О литератур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тьи Москва
- Гудзий НК(1956) История древне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Лихачев ДС(1987)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1.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Лихачев ДС(1987)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2.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Лихачев ДС(1987)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3.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крипиль, МО(1948) Повесть об Улиянии Осорьиной 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и тексты ТОДРЛ

Abstract

A Study on Images of Women in Old Russian Literature

Mak-Lae, Jeong · Sun-Jin, Park

This study categorizes and analyzes images of women in the literary works from old Russian literature where female characters play important roles. Gender, having been divided binarily, actually was collapsing its boundary already in old Russian literature. The fact that female characters played important roles in male-centered society shows the open attitude of that society. It has an important meaning not only in literature but also from social perspective in that this open attitude is what constitutes the base for ope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five literary works from old Russian literature, ranging from 11th century to 17th century, where women play important roles. In "The Virgin Mary's Visit to the Hell", written in 12th century, the Virgin Mary appears as typical image, a deeply religious saint and mother. On the other hand, Juliania, appearing at a later period, is described a realistic saint who lives an ordinary life before dying as a saint. Thus, the image of women in early old Russian literature, escaping the sacred image, has evolved into a more secular image. Later, in 1661, in the story of Solomonia, the crazy wife, a woman of stanic image makes appearance. This story, along with the story of Meluzina, who becomes half human and half snake every Saturday for disobeying her father, shows that the image of women in old literature has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Same can be said about "Judif" who appears as patriotic image. She shows her patriotic image as good as traditionally male stereotype, for example by using her beauty only to save her country. It may be that she is the strongest and traditionally masculine image in old Russian literature. Having been described mostly dependent on men, women in old Russian literature

evolved into independent, autonomous female images. This change is noteworthy, for it shows how the cognition on women shared by the contemporaries has changed.

Key Words : Literature, Old Literature, Russian Literature, Image, Women, Religion, Christianity, Gudzi